

이미지 콘텐츠 비즈니스의
새로운 시장 개척하는

타임스페이스

지난 1985년에 설립된 (주)타임스페이스(대표이사 최송목)는 창립 이래 이미지 콘텐츠 분야에만 전념해 왔다.

타임스페이스는 다양한 이미지 데이터의 축적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에 매진해오면서 본격적인 디지털 시대로의 변화와 발전을 선도해 왔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다양하고 창조적인 이미지를 적시에 제공함으로써 편집 디자이너들에게 최상의 '전문 이미지 포털사이트' 로 인식되고 있다.



전문이미지포털사이트

올해로 설립 24년을 맞은 타임스페이스는 포토에이전 시로 출발, 사진작가와 광고업계 및 디자이너의 튼튼한 연결 고리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왔으며 다양하면서 수준 높은 기술력과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다.

24시간 자동 다운로드, 고속검색 알고리즘 도입, 최신형 프로세스 도입 가동, 인체공학적인 화면설계, 데이터 mining 시스템, 특색화된 검색어 자동완성 기능, 광고 디자이너들을 타깃으로 한 명화 갤러리, Editor's choice 등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업데이트와 추가적인 콘텐츠의 기획과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타임스페이스에서는 국내외 광고, 출판, 웹 제작 등에 사용되는 모든 이미지, 모션, 플래시 등을 판매하고 있다. 약 400만개에 이르는 보유 이미지 및 모션 250만 컷 등을 온라인 사이트에서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으며 국내 최고 수준의 보유량을 자랑하고 있다.

국내 유력 광고기획사, 광고대행사, 출판사, 웹 에이전 시 관련 디자이너들이 주요 고객이며, 올해 4월을 기준으로 회원 수는 7만 2천명에 달하고 있을 뿐 아니라 회원 대부분이 10년 이상 활발한 거래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다.

타임스페이스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이미지들



해외 108개 브랜드와 업무제휴

보다 다양하고 풍부한 이미지의 제공을 위해 타임스페이스는 해외 주요 콘텐츠업체들과의 제휴에 적극 나서고 있는데 현재 세계 3대 이미지 콘텐츠 회사로 꼽히고 있는 게티, 주피터, 코비스(Corbis)는 물론 로이터통신, 영국 BBC방송국 모션 등 108개 브랜드와 업무제휴 관계를 맺고 있다. 또한, 국내 400여명의 개인작가, 일본 미국 캐나다 등 50여명의 해외 작가들과 에이전트 계약을 맺고 시사성과 높은 작품과 작품 수준을 갖춘 작품의 지속적인 확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타임스페이스는 이미지 비즈니스의 성패를 “다양한 콘텐츠의 확보와 적시공급 및 빠른 검색”에 달려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오랫동안 진행해 왔다.

실제적인 고객이자 최대 고객층인 편집디자이너들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동시에 구매 의사를 갖고 있을 때 실시간으로 손쉽게 구매가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시스템 갖추고 있다. 여기에 필요한 이미지의 빠르고 실용성을 높은 검색이 가능한 시스템을 갖춰 풍부한 데이터, 작품성과 함께 사용의 편의성도 고려했다.

최송목 대표는 “콘텐츠 비즈니스의 핵심적인 요건은 풍부한 데이터와 사용의 편의성이 우선되어야 한다. 풍부한 데이터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이용률이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타임스페이스는 고객이 필요한 이미지를 즉시 제공하는 것이 마케팅 목표이다.

최송목사장의 단순하고 투명한 경영

물론 길으로 드러나지는 않아도 최송목 사장의 경영철학도 빼놓을 수 없다. “단순하고 투명함”으로 대변되는 그의 경영 철학은 자유로운 분위기를 표현하는 수평적 사고와 조직원 개개인의 개성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경영자의 최고 덕목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최송목 사장은 “직원들간의 화합과 함께 그들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시켜주는 것이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직원들과 사진작가 그리고 해외 에이전시 등



코사인전에 출품했던 모습과 사무실 내외부모습

과 신뢰를 바탕으로, 투명한 거래를 하고 있어 대외 신인도가 높아지고 있다” 라고 설명했다.

이노비즈기업 인증받아

타임스페이스의 온라인 인공지능 시스템은 기존에 비해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카테고리의 세분류, 컬러 매니지먼트 등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인 것이 눈길을 끌었다. 타임스페이스는 이와 관련된 노력과 기술력을 인정받아 지난 2006년 11월에는 관련업



계 최초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서 '이노비즈기업 인증'을 받는 기쁨을 누리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타임스페이스는 고객을 담당하는 직원들이 전원 사진, 디자인을 전공한 업계 최고 수준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고객의 요청에 대해서 전문적인 컨설팅은 물론 철저한 저작권 관리, 사후 A/S의 완벽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어 고객들의 만족도를 높여주고 있다.

앞으로 이미지 콘텐츠 사업은 인터넷의 지속적인 성장과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강화됨에 따라 소규모 영세 규모에서 벗어나 대형화, 글로벌화를 지향해 갈 전망이다. 특히 디지털의 발전으로 이미지의 공급자가 급증해 마케팅과 판매유통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제작자 중심의 시장에서 유통업자 위주로 시장의 무게중심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한미FTA의 체결은 저작권에 대한 인식을 한 단계 더 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며 타임스페이스는 지금까지 음반, 소프트웨어, 학위논문 등에서 저작권이 인정되기까지는 더딘 진행을 보였지만 저작권의 확립이 결과적으로 산업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 만큼 더욱 확고히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앞으로 창의적인 이미지를 발굴, 기획하여 정기적으로 촬영하고 보다 한국적인 이미지 제작에 주력하여 당사 고유의 작품 보유를 늘릴 계획을 세우고 있는 타임스페이스는 디지털의 확산 추세에 발맞추어 디지털 작업의 속도를 한층 높이고 포토샵 작업을 병행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온라인 시스템과 인프라의 구축, 맞춤형 제품의 개발, 전문작가 발굴의 지원, IT와 연계된 사업의 추진이 예정되어 있다.

세계시장과 교류 활성화로 국내에서 성장 기대

현재 세계 시장은 세계적인 석유재벌인 풀케티의 계열사인 "게티이미지"와 빌게이치가 투자하고 있는 코스비가 양분하고 있으며 세계시장의 규모는 지난 2007년을 기준으로 2조 5천억 원의 시장으로 성장했으며 오는 2012년에는 4조 4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비해 국내 시장의 규모는 불과 300억원에 그치고 있어 경제규모로서 세계 10위권인 우리나라의 경제규모와 어울리지 않는 기형적인 현상을 보이고 있다. 국내시

장의 규모가 이처럼 작다보니 국내 업체들은 단순하게 외국 거대기업의 국내 에이전트 역할에 그치고 있으며 관련회사의 경영진도 무역에이전트, 사진가, 프로그래머, 광고에이전트 출신 등이 단편적인 정보로 회사를 설립, 운영해오고 있어 구조적인 적자에 시달리고 있으며 전문성의 부족으로 해외에이전트에 대한 의존이 심화되면서 그들의 입김에 좌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열악한 상황이다 보니 국내 대기업에서는 관심조차 없으며 업계에 대한 기초적인 실태조차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나 이는 예전에 밀 빠진 독에 물붓기라는 비난을 받던 '온라인 옥션'시장이 하루아침에 미운 오리에서 백조로 탈바꿈한 사례도 있어 멀리 내다보고 있는 경영을 하고 있다는 것이 타임스페이스의 입장이다. 결론적으로 국내시장은 현재 열악한 상황인 것은 분명하지만 향후 그 성장성과 잠재력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투자 매력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다. 특히 지난 2007년 이후 대형 스튜디오, 카메라 회사 등에서 회사 설립, 인수 등에 관심을 갖고 활발한 작업을 진행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을 뿐 아니라 전문 인력에 대한 스카우트 제의도 빈번해 지고 있다.

최 사장은 지금까지 좋은 기업으로 자리매김을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던 것처럼 앞으로는 세계를 지향하는 명품기업으로 한 단계 더 성장하기 위해 배가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성호 부장 kshulk@print.or.kr

최송목 대표이사

최송목 사장은 전자계산학을 전공하고 대기업 전산실 근무를 거쳐 (주)케이스를 창업했다. 연매출이 3억 원에 불과한 자그마한 회사였지만 7년 만에 600억 원에 달하는 매출을 올리는 유망 회사로 성장시켰고 코스닥에도 등록시켰다. 그런 그가 이미지 콘텐츠 비즈니스 사업 분야의 전문기업인 타임스페이스를 경영하게 된 것은 평소부터 문화 콘텐츠에 관심이 많았고 특히, 이미지 저작권 사업의 성장성이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 _ 동국대 전자계산학과 졸업
- _ 서울대 행정대학원 정보통신방송정책과정 수료
- _ 우크라이나 키예브대 Visiting 스쿨 수료
- _ 모스크바 국립대 명예 이학박사
- _ 한국 교육미디어 대표이사, (주)MK어학원 대표이사 역임
- _ 현 (주)타임스페이스 대표이사